

PRESS RELEASE

한국석유공업, 2022년 연 매출 7,000억 원 돌파...“창사 이래 최대”

- ▶ 매출액, 영업이익 전년동기比 18.9%↑, 15.7%↑
- ▶ 2022년 호실적 바탕으로 신규사업 안정화를 통해 매출 성장세 이어갈 것
- ▶ 2023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8,209억원, 282억 원을 목표로 노력할 것

한국석유공업(004090, 대표이사 강승모/김득보)은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불안정한 국제 유가와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호실적을 달성하며 역대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다고 9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한국석유공업의 지난해 연결 기준 경영실적은 매출액 7,479억 원, 영업이익 180억 원, 당기순이익 110억원으로 잠정 집계되며 창사 이래 최대 매출액을 달성했다. 이번 경영실적은 지난해와 비교해 매출액, 영업이익이 각각 18.9%, 15.7% 상승했다.

4분기 연결 기준 실적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836억 원, 47억 원을 기록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

회사측은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외형성장과 호실적을 동시 달성할 수 있던 요인을 아스팔트 사업부, 케미칼 사업부, 합성수지 사업부 전 부문별로 고르게 성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된 요인으로는 ▲아스팔트 사업부문 리사이클 신사업 매출 본격화 ▲합성수지 사업부문 블로우(BLOW) 기능성 제품 판매 지역 확대 및 판매 호조 매출 본격화 ▲아스팔트 사업 부문 원가 상승분의 판가 반영 등을 꼽았다. 이 외에도 ▲글로벌 케미칼 시장 가격 상승에 따른 매출 증대 ▲합성수지원료 수입 및 판매 확대 등을 통해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

한국석유공업은 전망 공시를 통해 올해 매출액 8,209억원, 영업이익 282억 원을 목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년보다 매출액은 10%, 영업이익은 57% 증가한 수치다.

한국석유공업 관계자는 2022년의 호실적을 바탕으로 트렌드에 맞는 시장 다변화 전략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한편, 신규 아이템 추가 개발 및 친환경 제품 매출 비중 확대를 통해 2023년 성장세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올해 1월 합병한 국내 아스팔트 방수자재 분야 선도기업인 극동씨엠씨와의 조직통합으로 비용절감을 달성하고 사업경쟁력을 극대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업 강승모 부회장은 “당사는 한발 앞선 기술 개발과 시장 선도의 역사를 가진 기업으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사업을 다각화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전망하고 있고 2024년까지 매출 1조를 목표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2024년 ESG경영 선포를 목표로 올해에는 독자적인 ESG 체계를 구축하고 전 직원의 내재화를 통해 그 초석을 다질 것”이라며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위기 대응에 동참하고 ESG 기반의 친환경 제품을 발굴 및 개발하는 등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